

기고

다뉴브 강변의 달



이 숙 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올해 추석 휴가는 유난히 길어, 전후로 며칠씩을 보태 20일간의 유럽 여행에 나섰다. 이미 많은 사람이 내 집 드나들 듯 하는 곳이지만 탐구법적인 유희성이라는 여행의 속성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다. 학술 활동의 연장이 아니라 '순수 놀이'를 즐기는 것이 아님을 불편하고, 형제와 친족들이 성묘를 하고 제사를 준비할 시간에 공항에 운집한 1인이 된다는 게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오래전에 기획한 것이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니만큼 명절의 뜻에도 부합하는 게 아닌가?

첫 여행지 파리에 도착하니 산티아고 순례 길에서 2주간의 여정을 마친 작은아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파리의 3박 4일은

아침 식사가 끝나면 바로 거리로 '출근'하여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퇴근'하는 식이었다. 때론 함께 때론 따로 다니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폭풍 흡입'하는데,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았다. 다만 90년 전 이곳을 찾았던 나혜석의 시선과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뺨이나 차를 먹고 침대에서 자고 스캐치 백스를 들고 연구소를 다니고 책상에서 불란서 말 단자(單字)를 외우고 (-) 실상 조선 여성으로서는 누리지 못할 경제상으로는나 기분상 아모 장애되던 일이 하나도 없었다."(나혜석, 1929)

내 눈에는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출근하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들이 낯설었다. 흡연에 성별 잦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문화 관행과는 달리 그녀들은 이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꼬리를 몰자 나혜석이 또 생각났다. "우리가 여기서는 여자란 나부터 도 할 수 없는 약자로만 생각되더니 거기 가서 보니 정치, 경제, 기타 모든 방면에 여자의 세력이 펴 많습디다."

파리에서 기자로 1시간 남짓 거리의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혁명기의 여성들

이 걸어서 8시간 만에 도착한 곳이다. 뺨만들 밀가루를 달라며 루이16세를 만나러 간 대열의 선두에 섰던 당시의 파리 여성들. 그즈음 조선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삼남 지방 백성들의 생계가 위협받자 나라에서는 진휼(賑恤)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진휼 문서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양반집 부녀들이 문밖을 나오지 않아 구제를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올라왔다.(정조 17년 2월 20일) 가난과 굶주림을 대하는 두 여성 집단의 차이가 오늘날 두 사회의 여성 지위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을 법도 하다.

파리 동역에서 테제베를 타고 독일로 넘어가 거기부터서는 자동차로 이동했다. 그곳에 사는 큰아들이 합류하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의 여러 명승지를 찾아다녔다. 유럽의 지방이라는 용프라우로 가며 그 길목의 베르에 잠시 머물렀다. 도시를 걷는 내내 중세기로 들어온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스위스는 독자적인 통화를 썼는데, 주치를 해놓고 주전을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못하자 마침 그곳에 있던 젊은 한 쌍이 2.5유로에 해당하는 스위스 프랑을 건넸다. 우리 쪽에서 0.5유로가 없으니 3유로를 받으라 했

더니 굳이 사양하며 2유로만 달라고 한다. 아무리 애원해도 요지부동. 총총히 사라지는 남녀를 보며, 우리 돈 700원에 불과하지만 배려를 몸으로 익힌 그들이 부러웠다. 내 기억 속의 스위스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루체른, 인스부르크, 쾰츠부르크, 비엔나, 라이프치히, 프라하 등의 도시에는 근대적 효율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독자적인 역사적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역사적이게도 그것은 세계 사람을 유혹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역사 사건이나 인물과 유적들을 스쳐 지나면서 동시대의 우리 역사가 되짚는 버릇은 직업병이리라. 인문 풍경 자연 풍경 다 다르지만 보고 견고 만나다 보면 또한 사람이고 사람 사는 곳이었다.

10월 3일 개천절은 독일에서도 통일 기념의 날로 휴일이었는데, 둘은 내용은 다르지만 개벽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날 우리는 비엔나 인근 다뉴브 강가의 작은 도시 툴른에 여장을 풀고, 보름달이 비추는 다뉴브 강둑을 거닐었다. 달은 같은 달이라도 땅의 문화는 동서양이 달랐던 것인데, 만물이 가속화될수록 그 다음은 새로운 모양을 빚을 것이다.

기고

‘화순 국화향연’으로의 초대



구 충 곤
화순군수

올해 군 대표 축제로 격상해 치르는 만큼 어느 축제와 사뭇 다르다. 주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일상생활상을 잘 묘사한 성인 벽화마을과 문화관광형 고인돌 전통시장과 연계해 이들을 함께 둘러보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심 공원에 피어난 형형색색의 50만주의 국화와 억새, 목화, 수수, 코스모스, 해바라기와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하며 관광객들은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지게 될 것이다.

이번 축제에서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을 형상화한 고인돌 게이밍과 핼배비위 등 더욱 다양해진 국화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남산공원 남문 가로수 길에 야간 빛 거리인 ‘국화야(야) 거리’가 조성되고, 관광객과 함께하는 연극, 마임, 마술 등 프린지 공연이 새롭게 선보인다.

국화동산(3ha)과 야외전시장(2ha) 일원 등 5ha에 지난해 45만 그루보다 늘어난 50만 그루의 국화가 남산공원을 장식한다. 고인돌 게이밍을 비롯해 입석대, 핼배비위, 공룡, 운주사 석탑과 복숭아, 파프리카 등 화순의 대표 문화·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형상화한 조형물 435점이 국화 동산 탐방로 주변에 테마별로 배치된다. 분재관, 대국관, 현애관 등 3개의 국화 전시관이 운영되고, 화단국 15 품종 20만 그루가 공원과 경사면 등에 조성된다.

특히 화순적벽을 형상화 한 인조 암석을 국화 동산에 설치하고 동북호를 연상케 한 호수를 조성해 김삿갓이 배를 타고 가는 모형을 배치함으로써 김삿갓이 적벽의 빼어난 경관에 반해 화순을 세번이나 찾은 사실을 이미지로 연출한다.

축제가 열리는 남산은 적당한 경사의 언덕으로, 자연의 곡선미를 최대한 살려 아늑한 정원의 맛을 풍기면서 힐링 정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국화 향연은 밤 10시까지 운영돼 은은하면서도 특별한 조명과 거리 공연 등이 곁들여지며 색다른 맛을 자랑한다.

광주에서 저녁 식사 후 출발하더라도 야간 국화 동산 풍경을 오려려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축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17일간이지만 국화가 사들지 않는 한 11월 말까지도 관람이 가능하다. 축제장에서 화순적벽을 가볼 수도 있다. 천하제일경이자 국가 지정 문

화재 명승 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은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

국화 향연에 오시면 셔틀버스를 타고 적벽의 태고적 신비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적벽 버스투어 일정을 연장 운영하게 된 것은 축제 참여객과 관광객들에게 화순의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화순적벽 관광과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삿갓 방랑 체험, 성안마을의 방정자 놀이, 국제 차 문화제, 중앙절 의식, 서울팝스 오케스트라 공연 등의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도 마련했다. 축제 기간에 군민회관 입구 길목에서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된다. 아로니아환, 꾸지뽕, 된장, 잡곡, 열매마, 꽃송이버섯 등으로 짙 좋은 화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화순군은 이번 축제를 안전하고 진절 한, 화합의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각종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내요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축제가 될 것이다. 값이 가는 가을, 우리 군의 맑고 열정의 산물인 2017 화순 국화 향연’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

종교칼럼

영화 ‘산상수훈’의 안목



원 목
선덕사 주지

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악이 가득한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에게 죄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내 죄가 없어지는가 등 가깝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왜 이런 토론을 어두운 동굴 속에서 했을까? 밝음이 없는 동굴은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플라톤의 동굴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에서 진리에 대한 무지를 뜻하는 무명(無明)은 어둠이다. 한편으로는 믿음을 강조함에 따라 이러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종교적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영화를 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스님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어떤 이들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과학자들은 ‘결론’을 미리 정하고 실험을 통해 그 결론을 증명하려고 한다. 미리 정한 결론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실험 과정에서 가설이 흔들리면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런 면에서 과학자의 핵심 능력은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기도 하다.

대해스님 또한 하나님과 천국과 우리 자신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증명해보고자 했다. 이 가설은 매우 불교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 뿐 아니라 현대 철학은 모두 그런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또 불교 입장에서 가설을 세웠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 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만들고 가꾸어 온 인류의 공유자산이기 때문이다.

대해스님이 질문하고 발견하여 해석한 성경은 다른 색깔로 다가온다. 신의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인간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 그동안 선악과의 효과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모습이 발현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불교와 용어를 달리 할 뿐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기성 종교 입장에서는 불편할 일이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은 틀린 것일까? 아닐 것이다. 성경은 누군가의 해석이며, 또 재해석이다. 어떤 것이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 안목에 따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진리는 고정된 모습이나 이론으로 있지 않기에 다른 입장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견해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된다.

영화를 만든 대해스님은 모든 종교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종교별로 교주가 다르고 교리도 다르며 종교 의식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질이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 좋은 의도는 충분히 읽힌다.

우리는 다른 것을 낯설어하고 불편해한다. 모든 것은 본래 같을 수 없음에도 종교적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립하고 다룬다. 다름에서 다르지 않음을 보고, 같음에서 같지 않음을 보면서 공존의 가치를 알고 종교끼리 잘 어울려 살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라.

만산홍엽의 계절이다. 무등산 자락의 울긋불긋한 나뭇잎을 보면 한 가지 색이 아니다. 여럿이 함께 잘 어울려야 아름다운 것, 우리 삶도 그렇지 아니한가.

社說

5·18 유족 분열·회유 공작의 실제 드러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유족을 분열시키기 위해 돈으로 회유하고, 묘지 성역화를 막기 위해 이장 계획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두환 정권은 5·18 유족들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운운한 사람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체제 비판적인 사람에게에는 1대1 감시라는 강은 양면 정책을 사용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어제 공개한 국군 보안사령부의 ‘비밀기 시행계획’ 등의 문건에 따르면 5·18 묘역의 성역화를 막기 위한 이장 계획이 시행됐다고 한다. 198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전남남·광주시·505보안부대·검찰·안기부·경찰 등이 동원됐으며, 이전비·위로금 등으로 회유해 묘지 분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사태 관련 현황’에는 ‘전남 도지사 각하 면담 시 공원묘지 이전 검토 지시’, ‘내무장관과 도지사, 각하계 보고’ 등의 내용이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들 직접 행간 사실이 언급됐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1981~1988년 작성된 보안사 내부 문건(6종)에도 보안사가 유족을 돌로 나눌 수 있는 성역화를 막기 위해 ‘불 뚫기 작전’을, 온건 측에는 ‘자원과 육성 활동’을 실시한 정황이 담겼다. 이중 1981년 5월 28일 작성된 ‘광주사태 1주년 대비 예방 정보 활동’은 유족이나 민주 세력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구속자 가족의 미국공보원 농성을 외해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협조했고,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두고 공세적 시위 진압 훈련인 ‘충성 훈련’을 실시해 비상 대기토록 한 사실도 나와 있다.

이는 5·18 이후에도 군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 권력이 5·18 외해 공작에 동원됐다는 생생한 증거들이다. 앞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에 국가 공권력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시급한 이유다.

아직도 불만 높은 나주 혁신도시 정주 여건

나주 혁신 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제가 이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크게 부진한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10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 2022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가 48.9점(100점 만점)에 그쳤다고 한다. 전국 평균 점수 52.4점에 훨씬 못 미친다.

특히 주거 환경(54.4점)과 여가 활동 환경(41.2점), 교육 환경(48.5점), 편의·의료 서비스 환경(48.5점) 등의 부문별 만족도에서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4명 이상이 ‘혁신도시 기러기’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전체 이주 직원 6329명 중 42.5%인 2238명(독신·미혼 제외)이 가족과 떨어져 ‘나홀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내 가장 취약한 정주 여건 분야는 ‘편의·의료 서비스 환경’으로 꼽혔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영화관, 대형마트, 종합병원, 지하철, 학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편의성은 높지만, 의료기관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편의시설과 의료서비스 환경이 크게 부족한 것이다.

‘나 홀로 이주’는 혁신도시 활성화의 커다란 걸림돌이다.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가족 동반 이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족과 함께 옮겨갈 수 있도록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1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베트남 참전을 남지시 제안했다. 미국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나중에 미국 측 기밀문서가 해제됨으로써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최초로 전투 병력을 보낸 시점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65년 10월 3차 파병 때였다. 미

인 전투한·노태우·정호용이 모두 베트남 전에서 실전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월남전과 5·18

최근 월남전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참전의 여파가 5·18에까지 미쳤다는 증언과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5월 광주일보와 인터뷰한 공수부대의 한 지휘관은 5·18에서 자행된 군의 잔혹한 살상과 진압의 배경을 들려줬다. “진짜 악랄했지. 경험이 있었으니까. 월남에 다녀온 사람들 아니요. 공수부대란 게 하사관(부사관)들이 주축인데,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아 공수부대 내에서도 전투력이 월등했지. 그런 하사관들이, 군에 ‘말뭉’ 박기로 작

분석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광주 시민을 ‘베트콩’으로 보고 대응했다는 것이다. 적과 적으로 싸웠던 전장의 경험이 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동력이 됐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일부 군인 때문에 나라를 위해 싸웠던 많은 월남전 참전 군인의 명예가 실추된 것 같아 안타깝다. 새 정부의 5·18 진상 규명 작업이 한창이다.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들의 ‘참회 증언’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지털실 220-0536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